

무공해 · 무사고 위한 신기술 발표

카를로스 곤 닛산 회장, 미래 이동수단 진보시킬 새 기술 · 파트너십 발표... 5가지 핵심 내용 소개

카를로스 곤 닛산 회장 겸 CEO는 지난 5일(현지시간) 'CES 2017'에서 무공해(Zero-emission)·무사고(Zero-fatality) 미래 이동수단을 진보시킬 새로운 기술과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카를로스 곤 회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닛산 인텔리전트 모빌리티'(Nissan Intelligent Mobility)의 일환으로 새로운 기술 및 파트너십을 발표하며 5가지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상용화에 속도를 올리기 위한 혁신 기술 'SAM(Seamless Autonomous Mobility)'을 발표했다.

SAM은 돌발상황이나 방해물에 의해 자율주행이 영향을 받지 않는 끊임 없는 자율주행 기술로 미 항공우주국(NASA)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차량 내 인공지능(AI)과 협력해 자율주행차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차량 내 인공 지능에 대한 지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곤 회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르노-닛산 얼라이언스(Renault-Nissan Alliance) 주도 하에 닛산이 일본의 인터넷 기업 DeNA와 함께 상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자동차 개발을 위한 테스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테스트 첫 번째 단계는 올해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일본 내 특별 구역에서 진행되며, 두 회사는 2020년까지 도쿄 시내에 모빌리티 서비스 기술을 상업적으로 도입시키기 위한 테스트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기차 리프 신모델에 단일 차선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한 닛산의 자율주행 기능 '프로파일럿(ProPILOT)'을 탑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형 리프를 가까운 시일 내 출시할 예정이라며 이는 닛산 인텔리전트 파워(Nissan Intelligent Power)의 새로운 장을 나타낸다고 언급했다.

닛산 인텔리전트 드라이빙(Nissan Intelligent Driving)과 닛산 인텔리전트 인터그레이션을 결합한 커넥티드카와 관련해서는 르노-닛산 얼라이언스가 차세대 커넥티드카 기술 구축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와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조 연설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개인비서 기술인 코타나(Cortana)가 운전을 어떻게 생산적이고 원활하게 만드는지 시연했다. 코타나는 얼라이언스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함께 탐구 중인 기술 중 하나다.

곤 회장은 또 이런 기술들이 세계 도시에 통합되도록 필요한 정책 환경 및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록펠러 재단의 '100대 리질리언트 시티(100 Resilient Cities)'와 체결한 새로운 파트



카를로스 곤 닛산 회장 겸 CEO는 지난 5일(현지시간) 'CES 2017'에서 무공해·무사고 미래 이동수단을 진보시킬 새로운 기술과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너십을 발표했다.

100대 리질리언트 시티는 전세계 도시들이 물리·사회·경제적으로 직면한 문제에 자체적인 회복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다.

닛산은 이 단체 최초의 자동차 플랫폼 파트너로 참여해 도시들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그는 "닛산은 새로운 자동차와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험시 도움이 되는

기술 파트너부터 전자상거래, 라이드 헤일링(이동수단이 필요한 소비자와 이동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및 카셰어링 플랫폼, 사회적 기업까지 협력할 수 있는 모든 기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모든 이들이 그들의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최신 기술과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AI가 자주의식 가지면 인류 멸망"

중 바둑 9단 구리



바둑 인공지능(AI) 알파고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마스터(Master)에 패배한 중국 프로기사 "AI가 자주의식 가지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6일 평양왕에 따르면 중국 바둑 기사 구리 9단은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인류가 이번엔 AI에 완패한 것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으며 인류가 AI 발전에 대비해 무엇을 해야 되는 지 등을 깊이 사고해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구 9단은 또 "AI가 언제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킬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이 특별한 기능이 없다면 반드시 AI에 대체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전날 구글 딥마인드 측은 최근 한중일 최고의 프로 바둑기사를 패배시킨 신비의 고수 마스터(혹은 매지스터)가 알파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란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마스터는 4일 저녁 구 9단을 패배시키면서 인간과의 대결에서 60승 1무 0패의 기록으로 완승을 확정지었다.

작년 말부터 마스터(매지스터)와 대결한 바둑 고수에는 한국의 랭킹 1위 박정환 9단, 김지석 9단, 박영훈 9단, 중국 측에는 쉰제 9단, 스웨 9단, 구리 9단, 원로기사 네웨이핑(65) 9단, 일본에서는 이마야 유타 9단 등이 포함됐다. /뉴시스

구 9단은 작년 알파고와 이세돌 9단과의 대국에서는 알파고의 일부 단점이 노출된 것에 반해 마스터의 단점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작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경기를 보면서 인류는 AI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스터와 톱 프로 기사들의 대국을 본 이후 인류는 AI를 전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I가 사람에 비해 얼마나 앞서 있는 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20수를 먼저 두게 함에도 이길 수 없다면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신한은행, S20 홈페이지 방문고객 100만 돌파

신한은행은 20대 고객을 위한 전용 브랜드 '신한 S20' 홈페이지(www.s20.co.kr)의 지난해 연간 누적 방문고객이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신한은행은 오는 15일까지 S20 홈페이지에 축하 댓글을 등록한 이들에게 300명을 추첨해 한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식사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0대 고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S20 방문고객이 1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2011년 신한 S20 브랜드를 출범한 이후 20대 청년들을 위해 ▲시험기간 간식을 제공하는 '간식화 개론' ▲취업과 진로를 멘토링하는 '신한은행 JOB 콘서트' ▲20대를 위한 연말 불금 파티 'S20 클럽 유타콘'에서 놀자 등 다양한 이벤트와 소통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스마트카 등 신산업 · 신서비스 창출 나서

미래부 업무계획... 고기능무인기 등 미래성장동력 10대 분야 상용화 계획 수립 등

정부가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 및 신서비스 창출에 앞장선다.

바이오와 기후변화 관련 산업,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등 미래성장 산업에 대한 육성 전략을 본격 기동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스마트카, 고기능무인기 등 미래성장동력 10대 분야의 상용화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혁신조달과 연계로 통한 초기 시장창출을 지원한다.

바이오 산업 선도를 위한 일환으로 신약, 신개념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올해에는 신약 후보물질 개발, 신기법 의료기기 분야에 신규로 580억원을 집행하는 등 총 1271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맞춤형치료, 예방의학, 정밀의료 등 의료 환경 변화를 선도할 BT-IT 융합

기술 개발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후 변화 대응을 신산업 창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기후산업 육성 모델'을 확대하고 탄소 자원화 기술개발·실증도 추진한다.

민간투자자 IoT(사물인터넷) 전용망 확충, 교육·금융·의료 분야 민간 클라우드 이용 시범사업,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O2O(온·오프라인 연계) 규제개선 및 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시장 창출에도 나선다.

아울러 세계 최초 지상파 UHD(초고화질) 본방송(수도권)을 개시하고, 2018 평창올림픽 5G 시범서비스 및 2020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적극 추진한다.

미래부는 "SW(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을 위해 유망 기업의 R&D(연구개발)·해외진출 등을 종합 지원할 것"

이라며 "VR(가상현실) 규제개선 및 디지털콘텐츠펀드 투자규모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융복합시대에 맞는 미디어·통신산업 경쟁구도 구축이라는 밑그림도 그렸다. 케이블 TV 재허가를 간소화하는 등 유료방송 규제를 완화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초고속 인터넷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방송 품질평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품질 제고를 유도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초고속 인터넷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형 시험발사체 체계 모델 제작·시험, NASA(미 항공우주국)와의 달탐사 협력 등 도전적 우주개발을 가속화를 통해 우주·원자력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뉴시스

현대차, 브라질서 '판매량 4강' 진입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브라질 시장에서 판매량 기준 4위권에 진입했다.

지난 6일 브라질자동차협회(Fenabrave)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지난해 전체 자동차(승용+상용) 판매량은 총 198만6389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9.8% 줄어든 것으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브라질 자동차시장 내 판매 순위는 'GM'(34만15847대), '피아트'(30만4980대), '폭스바겐'(22만8456대)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2013~2014년 6위에서 2015년 5위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에는 '포드'를 제치고 순위가 한 계단 상승했다.

같은 기간 현대차의 시장점유율은 9.96%로 지난해(8.26%) 대비 1.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현대차 HB20

지난해 현대차의 판매 호조는 현지 전략형 소형 해치백 모델인 HB20가 이끌었다.

HB20는 지난해 전년 대비 10.2% 증가한 12만1616대가 팔려 GM 'ONIX'(15만3372대)에 이은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판매 1~2위인 GM과 피아트는 각각 10.9%, 30.6% 급감했다. 현대차는 소형 SUV 크레타를 투입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킨다는 복안이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